

자크 엘룰(Jacques Ellul)과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를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적 과제 연구

조만준 (충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엘룰과 쉐퍼의 역사 이해 방법

1. 엘룰의 역사 이해
2. 쉐퍼의 역사 이해

III. 엘룰과 쉐퍼의 영성의 특징

1. 엘룰의 영성
2. 쉐퍼의 영성

IV. 엘룰과 쉐퍼를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관

1. 엘룰의 관점
2. 쉐퍼의 관점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7>

• ABSTRACT •

A Study on Social Ethic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Focusing on
Jacques Ellul and Francis A. Schaeffer

Cho, Man Joon(Chong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delves into Ellul and Schaeffer's theology and perception on the Christian society in order to describe Christian perspective upon the world as it concentrates on their historical understanding, spirituality, social ethical role and responsibility as Christians deserve greater attention. Jacques Ellul(1912-1994) and Francis A. Schaeffer(1912-1984) were both representative evangelical intellectuals devoted to a faithful Christian living while criticizing contemporary civilization. They believed that Christian faith was still meaningful in modern society and would correct the evil practices of modern society. They were not only the best intellectuals at the times who criticized many ill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based on their Christian faith as well as activists who carried out significant actions. They offered social ethical responsibility for Christians living in a technology-based-world regarding the Bible as the absolute value. By their actions and lives, Ellul and Schaeffer revealed Christian influence to the world and emphasized their role as the 'light and salt.' Thus it is possible enough to say that their intellectual heights, passionate faith, influences and challenges to the world set the living standard for Christians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Jacques Ellul, Francis A. Schaeffer, Evangelical Intellectuals, Spirituality, Christian Perspective, The Bible, and Light and Salt

I.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배경과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정신적 실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정신적 실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¹⁾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 했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지성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 1912-1994년)과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년)의 질문이다. 자크 엘룰은 보르도 태생으로 법학박사이며,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는 보르도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으며, 『신앙과 삶, Foi et Vie』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했다. 그는 서구의 역사와 현재 기술 사회의 위험성을 제시했다. 엘룰은 더 나아가 기술 사회 속에서의 종교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연구했다. 그는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서 계시를 믿는 현대인의 삶을 분석하였다. 프란시스 쉐퍼는 복음주의 저자이며 철학자, 강연가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5년에 국제적 연구와 사역을 위한 공동체 라브리(L'Abri)를 설립했다. 쉐퍼는 20여 권에 걸친 방대한 저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 세속화로 초래된 결과들을 기술하였다. 또한 서양 문명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성경적 절대 기준을 제시했다. 쉐퍼는 인식론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정통성을 견지했다.

1) 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Geoffrey W. Bromil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20.

특별히 이러한 질문들은 오직 종교²⁾에 의해서만, 그리고 계시³⁾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답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크 엘룰과 프란시스 웨퍼는 모두 1912년에 출생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행동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사생활 차원으로 전락되는 것과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는 명백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염려했다. 엘룰과 웨퍼는 기독교 신앙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현대 사회의 잘못된 병폐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선지자적 통찰력과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指標를 제공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구 역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분석적인 해석을 통해 세상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안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엘룰과 웨퍼에 대한 연구는 個別的이고 斷片的인 연구 방법으로만 진행되

2) 종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너무도 다양하다. 사회학의 많은 책들이 그 견해를 다루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버는“종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종교의 본질적 의미보다 특정 사회 행위의 조건과 결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 보기 때문이다. 뮐러(M. Muller)는“언어의 질병”이라고 규정한다. 진화론자들은“미숙한 과학”이라고 정의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종교를“허위의식”이라고 본다. 실체적인 의미에서 뒤르켐(Emile Durkheim)은 종교는“성스러움의 체험”, 오토(Rudolf Otto) 역시 종교는“거룩한 것(the holy)”이라고 강조한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며 聖과 俗의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포괄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루크만(Thomas Luckmann)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실체로서의 세계관”을 말한다. 미국의 종교학자 벨라(Robert N. Bellah)는“인간을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조건에 관계지우는 일련의 상징적 형태와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종교에 대한 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종교에 대한 정의를 얻어 낼 수 있다. 종교는“초월적 존재와 관련되는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믿음, 행위, 가치 체계이다.”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이문출판사, 2001), 144-157.

3) 계시(啓示)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감추인 것을 드러냄”, “자기를 현시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뜻한다. 어떤 종교도 각기 제 나름의 형태로 된 계시가 있다. 그것은 특이한 환상적 영상(映像), 지적, 윤리적, 정신적 내면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역사적인 객관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복음의 소식”이다.

어 왔다. 엘룰은 철학과 신학에 기초하여 기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및 사회·윤리적 대안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프란시스 쉐퍼는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생명윤리의 측면에서 낙태와 안락사, 동성애에 대해 反對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이 부각되었다. 동시대를 살아간 복음주의 지성인 엘룰과 쉐퍼의 신학과 생애를 일직선상에 놓고 總體的이고 包括的인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및 세속화 시대를 향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나열에서 벗어나 두 인물의 신학과 세속 사회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적 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양하고 폭넓은 두 사상가의 신학적 특징과 정치, 사회에 대한 입장은 배제하고 그들의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인 역사 이해 방법을 토대로 영성(靈性, Spirituality)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적 역할만을 재조명하였다. 엘룰은 그의 저술과 논문을 통해, 쉐퍼는 그의 전집과 생애를 통해 사상적 비교와 분석을 제시했다. 자료의 협소함과 신학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편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지금 서 있는 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II. 엘룰과 쉐퍼의 역사 이해 방법

어떠한 역사적 연구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본성, 역사적 인과 관계 등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적 방법론, 혹은 일단의 가정들을 하나의 측면으로 삼고 있다. 해석의 방법과 역사의 자료 사이에 일종의 상

4) 엘룰과 쉐퍼를 다룬 연구로는 최홍기, “프란시스 쉐퍼와 자크 엘룰의 문화관 비교 연구,” (서울: 총신대 일반대학원 석사, 2008)를 참고하라. 최홍기는 엘룰과 쉐퍼를 계시에 근거한 가치관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건택(1997)이 언급했듯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에 무슨 의미가 부여된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셨기에 역사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⁵⁾ 엘룰의 언급처럼 “논리적이고 직선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기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존재한다.⁶⁾ 다음에서 엘룰과 쉐퍼의 역사적 해석의 열쇠 즉 그들의 관점과 전개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비중 있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엘룰의 역사 이해

1) 역사의 필연과 자유의 변증법: 계시중심

엘룰은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분히 일관성 있는 주제와 준거점을 제시했다. 그는 『법의 신학적 기초(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제도, 역사 일반에 대한 구제의 여부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⁷⁾ 비록 그가 환원주의라는⁸⁾

5) 박건택 외 공저, “엘룰의 실존주의 역사 이해,” 박건택, 『현대 문명 비판과 새로운 기독교』(서울: 길르앗, 1997), 54.

6) Jacques Ellul, *In Season out of Season*, trans. David W. Gill (California: New College Berkeley, 1984), 230-235.

7) Jacques Ellul,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 trans. Marguerite Wieser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9), 15.

8) 환원주의(還元主義, reductionism):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事象)이나 개념을 단일 사상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특히 과학철학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이론적 개념이나 법칙을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경험명제(經驗命題)의 집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실증주의적(實證主義的) 경향을 가리킨다. E. 마하와 R. 아베나리우스 등의 경험비판론, M. 슐리크와 R. 카르나프 등의 논리실증주의가 그 전형(典型)이다. 전자가 감각적 경험에 대한 사실적 환원을 지향한 데 반하여 후자는 관찰명제(觀察命題)에 대한 ‘언어적 환원’을 지향한다는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이 반형이

비난은 받지만, 엘룰은 역사의 역동성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가 점차 기술 사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속화되었다고 보았다. 이은선(1991)이 언급했듯이 엘룰은 “과거의 전통적인 성경해석의 방법으로는 현대 세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대안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⁹⁾

엘룰은 『폭력(Violence)』에서 “역사란 필연과 자유의 변증법적 관계로부터 발전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조망”이라고 제시하였다.¹⁰⁾ 엘룰은 급진적인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연관, 또는 역사관과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론을 가정하는 있는 代案的 관점의 두 가지의 견해와 구분되게 필연의 우주를 정의했다. 그가 의미하는 필연성이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유 윤리학(Ethics of Freedom)』에서 밝혔듯이, “현대 삶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세속화, 돈과 권력,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일련의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직·간접적으로 삶 가운데 관련되어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¹¹⁾ 따라서 역사는 자신의 지적 전제들과 조화되는 행동을 하며 의식적으로 반성하는 개

상학(反形而上學)의 입장에서는 노선을 같이한다. 후자는 다시 관찰명제의 기술(記述)에 감각어건언어(sense-datum language)를 취하느냐 사물언어(thing language)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주의(現象主義)와 물리주의(物理主義)로 갈라진다. 또 생물학에서는 생명현상이 물리학 및 화학의 이론이나 법칙에 의하여 해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생기론(生氣論)에 대립한다. 환원주의는 심리학상의 행동주의나 사회과학상의 방법론적 개체주의(個體主義)를 가지고 통일과학의 이상을 추구했으나, 그 주장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지적되어 실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 9) 이은선, “Theological Thoughts of Jacques Ellul,” 『학술저널』(인양: 대신대학 논문집 11, 1991), 573.
- 10) Jacques Ellul, *Violence: Reflec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rans. Cecelira Gaul Kings (New York: Seabury Press, 1969), 38; 자크 엘룰, 『폭력』, 최종고 역 (서울: 현대출판사, 1974).
- 11) Jacques Ellul, *Ethics of Freedom*, trans. G.W. Bromile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 37-38.

인들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 무의식적인 동기 부여, 집단적 소속감 등을 이루는 動因이기도 하다.

역사란 바로 필연적인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이다. 엘룰에게 있어 변증법은 지식 획득의 수단 일뿐만 아니라 매우 중심적인 철학의 요소로서 역사를 그 전제로 한다. 변증법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구체적 실재와 분리하여 기독교적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기독교와 세상을 단일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엘룰은 『도시의 의미(The Meaning of The of City)』에서 변증법을 통한 성경 해석 방법으로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들만을 받아들인다. 그는 “하나의 성경적 메시지를 생각하기보다 현대 사회 속에서 적용 가능한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였다.¹²⁾ 엘룰은 기술사회 속에서 기독교 정치학이나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윤리 같은 것들이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현대 사회 분석의 독립성과 신학의 특수성을 확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계시된 진리의 일관성과 중요성을 확신했다. 이 두 요소는 별개이나 분명히 연계성을 갖는다. 이론적으로 둘의 모순성을 확증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는 상호 비평의 차원을 도입한다. 그는 사회학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는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며 이 둘의 상호 관계에서 사고의 틀을 갖는다.

2) 전적인 타자(他者)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엘룰에게 있어서 역사의 모든 것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여전히 피조물과 긴장하며 갈등을 유지하신다. 세계는 불확실하고 죄에

12) Jacques Ellul, *The Meaning of The of City*, trans. Dennis Parde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0), x vii.

의해 지배당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모순된 세계 속에서 전적인 타자로서 인간들과 관계하신다. 기술에 의해 지배당하는 이 시대는 동시에 은혜와 언약과 약속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인간 실존의 결정론과 필연론을 깨뜨리고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준다. 폴 리콥르(Paul Ricoeur)¹³⁾는 모든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만일 하나님이 개인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보았다. 리콥르는 역사의 기독교적 의미는 세속사가 거룩한 역사로 전개되고 결국 하나의 역사로 귀결되어 모든 역사가 거룩하게 되는 소망이라고 주장한다. 신앙의 대상은 역사의 의미로 남게 된다. 리콥르의 언급처럼 “진보가 합리적인 것이고, 모호성이 비합리적인 것이라면, 소망을 위한 역사는 超합리적인 것”이다.¹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사의 의미가 종말론적으로 자신의 삶은 진보의 시절과 모호성의 시절에서 흘러가며 마지막 날에 일치된 의미(l'unité de sens)가 나타날 것을 소망한다. 박건택(1994)은 “결국 역사의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¹⁵⁾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들이 먼저 신을 찾고, 그들의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당신 자신이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와 같이 거하시고

13) Paul Ricoeur(1913~2005): 프랑스의 철학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에게 철학과 신학을 배웠다. 또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여기서 현상학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밝히고 그러한 유한성으로 초월적 존재인 신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였다.

14) Paul Ricoeur, “Le christianisme et le sens de l'histoire,” 『In Histoire et verite』(Paris: Seuil, 1955); 박건택 외 공저, 58 재인용.

15) 박건택 외 공저, “엘룰의 실존주의 역사이해,” 63.

우리의 고통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따라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기독교 계시가 갖는 이러한 특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기술 사회에서도 몸소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엘룰은 그의 책 『The New Demon』에서 기술의 발전을 현대 사회를 발전시킨 動因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변이를 이루었다고 제시한다.¹⁶⁾ 기술의 非神聖化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길 원했다.

엘룰은 개혁 교회의 전통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수용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변혁하는 성령의 부르심과 능력으로 기계 문명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오갑(1998)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의 재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다.”¹⁷⁾ 그래서 기독교는 혁명적인 것이며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전적인 타자로 존재하신다.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 자유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복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16) Jacques Ellul, *The New Dem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58-64.

17) 이오갑, “현대문명 속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현대문명 비판과 새로운 기독교』(서울: 길르앗, 1998), 103.

2. 쉐퍼의 역사 이해

1) 인식론: 성경의 진리 중심

쉐퍼는 『기독교 선언(A Christian Manifesto)』에서 역사와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마음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그들의 사상세계에서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이 사실은 그들의 가치체계뿐만 아니라 창조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¹⁸⁾ 사람들은 누구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더 일관되게 삶으로 나타난다. 전제는 삶을 대하는 기본적 방식으로 세계관이자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grid)이다. 그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면서, 외부세계를 향한 어떤 틀을 제공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가치들을 형성하는 기초이자, 결정의 이유가 된다. 쉐퍼에게 있어서 이 원리는 일관성 있게 진술되었다. 그가 사상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분석하는 이유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인간의 사상, 즉 세계관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인경(1992)은 “모든 인간의 사상은 그 역동성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를 산출하며 그 필연적인 결과가 인류 문화”라고 언급했다.¹⁹⁾

『이성에서의 도피(Escape from reason)』에서 쉐퍼는 “서구 철학 사상의 흐름을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하여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칸트,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전된다.”고 제시했다.²⁰⁾ 로마사회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과 비교하면서 취약한 인식론적 기반이 로

18)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The Complete Works*, vol 5 Second Edi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5), 5-486.

19) 성인경, “쉐퍼의 현대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쉐퍼의 변증학 연구』(서울: 한국 라브리 선교회, 1992), 101-102.

20) Francis A. Schaeffer, *Escape from reason*, in *The Complete Works*, vol I: 1-195.

마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중세는 성경적 진리보다 그리스의 세계관에 영향을 입어 자연과 은총을 대립시킴으로서 결국에는 사회와 문화의 대안을 찾지 못하여 무너지게 되었다.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지 못한 서양문화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비인간화라는 현 주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복음주의의 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난국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쉐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독교가 서양 사회와 문화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로마 사회를 처음 다룬 것도 사실은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생겼기 때문이다. 중세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 교회가 성경을 왜곡함으로 중세가 끝나게 되었을 때에도 “성경적 진리로 돌아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쉐퍼의 기독교적 역사 이해는 단순히 기독교 교회가 사회와 문화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진리가 바람직한 문화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²¹⁾

2)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존재

쉐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와 역할에 관해서는 역사적, 성경적 전통성을 주장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성경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법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도덕의 절대 기준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도록 창조되었다.²²⁾

21)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486.

22)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in *The Complete Works*, vol I: 5-502.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결정한다. 쉐퍼는 기독교 진리의 생동감 넘치는 이유를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계시며 존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승구(2006) 역시 “존재하시며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²³⁾ 쉐퍼는 이 진리를 신앙의 출발점을 삼았고 특별히 지성의 출발점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인식론적 입장에서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선포한다.

쉐퍼가 하나의 사고방식으로서의 기독교에 선험적으로 몰두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죽었고 기계문명과 비인간화의 출현 앞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藥物과 性과 狂亂은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새로운 소망과 탈출구를 찾아가는 현대인의 욕구와 내적인 상황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病人을 진단했다.²⁴⁾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침묵하시지도, 멀리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의 근원적인 출발점을 제시했다. 성경과 기독교의 입장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무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 전에, 삼위일체 안에서는 항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우주 안에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23) 이승구, “위기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란시스 쉐퍼의 복음주의자들이 참으로 복음주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중심으로,” 『국제신학』(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54.

24)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5-502.

위해 언어로 표현되고 사실적인 계시인 성경을 주셨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셨고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환원적인 특성과 少數者 강조: 진리의 통일성

쉐퍼는 역사 발전에 있어서 이성과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리와 지식의 조화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통일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자신의 사상을 증거 했다. 그는 성경의 절대적 메시지를 시대의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약화시키는 경향을 비판했으며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될 것을 제시했다. 쉐퍼는 모든 형태의 행동 사회과학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호전적인 反對論者이다. 쉐퍼의 이러한 접근은 환원적인 특성과 소수자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사상과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실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진과 기근, 전염병, 사회적 조건, 개인적 카리스마 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제들의 전제, 혹은 심지어 전제들의 제공자로서 설명되는 것이 적절한가? 쉐퍼의 기독교론은 건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소 빈약한 면을 갖는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다는 쉐퍼의 주장은 공동체의 선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닌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모든 주장이나 근거가 언제나 역사적 실재에 대한 최상의 지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III. 엘룰과 쉐퍼의 영성의 특징

한 사람의 사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의 명예와 업적을 어느 수준에 못 박아 평가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그의 업적과 세상에서의 지위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러한 일은 점점 불가능에 가깝다. 엘룰과 쉐퍼는 모두 복음주의 지성인으로 성경의 계시 에 근거하여 신학의 방법을 전개했다. 그들은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관이 이 땅의 변혁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엘룰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강조하였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to be가 to do를 결정한다. 반면에 프란시스 쉐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은 인식론적 가치관 즉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세속화와 인간 존엄의 상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쉐퍼의 총체적인 영성의 모습을 반영해준다. 무엇보다 엘룰과 쉐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측면을 제공한다. 다음에서 그들의 신학사상의 基底가 되는 몇 가지 영성의 특징을 제시해 본다.

1. 엘룰의 영성

1) 신학적 사고(思想)의 형성: 성경·그리스도·계시중심

엘룰의 신학적 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을 알아보려면 그의 특별한 가정 환경과 자전적 고백을 기록한 『자크 엘룰 사상입문』을 참고함이 좋을 듯 하다.²⁵⁾ 그는 이른바 평신도 신학자로 불리기에 놀라울 정도의 신학적

25) 자크 엘룰, 김점욱 역, 『인터뷰에 의한 자크 엘룰 사상입문』(서울: 솔로몬, 1994),

자기훈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신학적 출발점은 칼 바르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기독교 신앙은 체계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개인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경험을 중시한다. 엘룰은 『The Subversion of Christianity』에서 신앙은 제도화되거나 집단화될 수 없으며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고백한다. 나의 사상의 기준은 성서적 계시요, 나의 사상의 내용도 성서적 계시요, 출발점도 성서적 계시에 의하여 제공되고, 방법도 성서적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따라 변증법적이라고. 성서와의 대화가 그 방법을 이루며 윤리에 대해 성서의 계시가 주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²⁶⁾

칼 바르트에게서 “기독교적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 거부되었듯이 엘룰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적 사회 행동이니 기독교 정치란 있을 수 없다. 그는 현대 기술 문명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의 실재를 제시했다. 다만 기독교인은 화해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필연의 질서 속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성경적 계시에 근거한 그의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그의 신학은 “성경·예수 그리스도·계시”에 기초한다.²⁷⁾ 엘룰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인격적인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진리를 재발견하여 진리의 성육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17-74.

26) Jacques Ellul, *To Will and To Do*, trans. C. Edward Hopkin (Philadelphia: Pilgrim Press, 1969), 1; 자크 엘룰, 양명수 역, 『원함과 행함』(서울: 전광사, 1990), 3.

27) Jacques Ellul, *Money and Power*, trans. Lavonne Neff (Downere Grove, Illinois: Inter-Varisty Press, 1984), 10.

2) 계시 중심의 영성

쉐퍼는 하나님을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엘룰은 은밀한 혹은 비밀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에 관련된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는 여러 과정들이 존재한다. 즉 너무도 많은 신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 과학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편협성이다. 엘룰은 이런 오해들은 사고 방식의 문제 때문으로 즉 변증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²⁸⁾ 즉 과학이 아니면 신앙, 신앙이 아니면 과학이라는 태도는 많은 갈등을 낳게 되었다. 과학과 계시는 두 가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목적 즉 과학은 설명을, 계시는 의미를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엘룰은 성경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현존하시는 현재적 하나님이며 그 수단으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계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엘룰은 『언어의 굴욕(The Humiliation of The Word)』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모든 신비주의를 반대하고 계시의 유일한 수단으로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⁹⁾ 이오갑(1998)의 표현처럼 “엘룰은 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의 계시를 듣고 이해하려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음속에서 느낀 그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다른 경로의 이해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³⁰⁾

28) 자크 엘룰, 김점옥 역, 『인터뷰에 의한 자크 엘룰 사상입문』, 77-89.

29) Jacques Ellul, *The Humiliation of The Word*, trans. Joyce Martin Hank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10.

30) 이오갑, “자크 엘룰의 종교와 기독교,” 『자크 엘룰의 이해』(서울: 길르앗, 1997), 116-124.

3) 보편구원론의 형성

엘룰은 어디서나 주저 없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그 행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자신도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만한 주장이란 것을 알았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에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Freedom)』에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해방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³¹⁾ 이런 자신의 노력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김성민(1998)에 따르면 “그 하나는 논리적 논증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 주장을 통한 논증이다.”³²⁾ 구원을 받고 아니고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신학은 곧 보편구원론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엘룰의 성경적 주해방법 속에서 보편구원을 논증하는 예는 무수히 많다. 가장 명확한 근거는 요한복음 3:16절이다. 우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세상의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화해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일을 인간의 의지로 제한할 수 없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와 자유의 관계 속에서 행동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31) Jacques Ellul, *The Ethics of Freedom*, trans. Geoffrey W. Bromil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 420-430.

32) 김성민, “세속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현대문명 비판과 새로운 기독교』, (서울: 대장간, 1998), 187.

4)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영성

엘룰은 만물을 예지하고 통제하는 권능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이상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는 어떤 섭리도 없으며 축복과 병과 부와 행복을 분배하는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동하는 컴퓨터가 아니다. 결국 섭리의 하나님은 없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성경의 하나님은 해방者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관에서 緣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배제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 하나님의 기계적인 섭리에 대한 엘룰의 반대를 이해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며,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배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정원범(1999)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보다 하나님의 섭리만을 인정하는 입장과 만들어진 피조물의 자율성을 허락함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제한하는 입장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칼뱅의 입장이 성경 안에 있는 변증법적 긴장을 제대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³³⁾

2. 쉐퍼의 영성

1) 성화(聖化)로서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핵심

쉐퍼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을 성화로 제시했다.³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 사람의 인격자가 역시 무한한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수렵에서 시작되고 영위된다. 성화를 이루기 위한 關門으로 거듭남과 칭

33) 정원범, “기독교 윤리와 현실 중 엘룰의 윤리와 평가,” 『엘룰의 신학이해 평가』(서울: 길트앗, 1999), 261-262.

34)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View of Spirituality*, The Complete Works, vol III Second Edi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8), 269-270.

의가 필요하다. 거듭남은 영성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모든 사람은 거듭날 때 영성의 생활을 영위한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에 기초를 둔다. 칭의는 성화로의 案內者이다. 성화는 순간순간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계적인 해결책이 아닌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영성이 충만하게 된다.

쉐퍼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신앙은 매순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뜻한다. 이는 성령의 내주(內住)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과 의지, 인격을 포함하는 全人的 존재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긍정하는 것으로, 진정한 영적 생활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나타난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적이기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그에 합당한 인격적 교제도 나누며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통해 이웃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성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Louis Gifford Jr(1990)가 말했듯이 “성화는 내주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영적인 실재이다.”³⁵⁾

2) 총체적(總體的)인 의미로의 영성

쉐퍼는 개인의 영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개인의 영성은 거듭남에서 그 출발점을 삼는다. Louis Gifford Jr(1990)는 “거듭남을 바탕으로 全人的인 치유와 인간과 인간과의 치유, 문화 정치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질적인 치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³⁶⁾ 그는 삶 전체에서의 그리스도의

35) Louis Gifford, Parkhurst, Jr, “진리에 관한 명백한 확신,” 김선일 옮김, 『프란시스 쉐퍼 그의 삶과 사역』(서울: 일지각, 1990), 214-215.

36) Louis Gifford, Parkhurst, Jr, “진리에 관한 명백한 확신,” 215.

주권을 실천하는 총체적 영성을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은 결코 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풍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쉐퍼는 “진정한 영적 교제는 지금을 위한 것이고 현재는 삶 전체를 치유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현재적인 영성을 실천으로 옮기며 영성에 근거한 행동을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그분 앞에서의 경건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³⁷⁾

쉐퍼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으로 인간을 대하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너무도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한 인격은 너무도 소중하다. 쉐퍼의 영성은 전인적인 사랑에 근거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성의 출발점이었다.

3) 실천으로서의 영성

쉐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하고 강조했다. 인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실천을 요구했다. 그의 『기독교 선언(A Christian Manifesto)』은 그의 사상을 실천에 옮김을 보여주는 실례이다.³⁸⁾ 시민불복종에 관하여 주의 깊게 언급하며 落胎 및 公害, 문화 사회의 전 영역에 대처할 때도 동일한 행동을 보여준다. 그는 진리인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실천으로 영성을 실현했다. 쉐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현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실천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인 라브리(L'Abri)를 만들었다. 라브리 사역과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신뢰를 근거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매순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의 영성의 특징이다. 쉐퍼의 이러한 실천의 강조는 결

37)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View of Spirituality*, The Complete Works, vol III, III, ii, 2.

38)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486.

과적으로 인간의 공로로 중심이 옮겨간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신념은 단지 변호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한다. J. I Packer(1992)는 “진리는 단지 논쟁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³⁹⁾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웨퍼의 영성은 성경중심의 전인적인 삶의 실재였다. 그는 진리에 근거한 철저히 실천적인 모습을 보인 사상가이며 영성의 내면을 적극적 차원의 실천으로 옮긴 선지자적 통찰을 지닌 영성의 소유자이다.

IV. 엘룰과 웨퍼를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관

엘룰과 웨퍼는 모두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량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변혁을 꿈꾸며 문화적 책임을 감당하길 원했다. 최홍기(2008)가 언급했듯이 “두 사람은 모두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사생활 차원으로 전락하는 것과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⁴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창조세계는 선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계는 기독교적 기반을 상실했다. 물질문명과 기계화는 인간소외와 권력, 돈과 세상을 쫓아가는 불순종의 영을 가져왔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엘룰과 웨퍼는 절망과 신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악한 영에 의해 지배 받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계시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39) J. I Packer, “내가 본 프랜시스 웨퍼,” 라브리 역, 『혼돈시대 속의 확실성을 찾아서』(서울: 일지각, 1992), 219.

40) 최홍기, “프랜시스 웨퍼와 자크 엘룰의 문화관 비교 연구,” 28.

인의 영향력을 선포하고 행동했다.

1. 엘룰의 관점

1) 세속 사회와 기독교: 기계문명으로 인한 피해와 회복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너무도 세속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대인의 삶의 양식 가운데 하나인 철저히 기술에 의해 통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은 너무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바쁘지만 우리의 현상적인 삶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진정으로 영원한 실체를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엘룰은 『세상속의 그리스도인(Presence of Kingdom)』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생각과 삶과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⁴¹⁾

말했다. 세상의 종말의 때, 즉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모아 들이는 그 때 최종적 분리 사건이 일어난다. 엘룰은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

41) Jacques Ellul, *Presence of Kingdom*, trans. Joyce Martin Hank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자크 엘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문장 (서울: 대장간, 1995), 14-19.

을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 기독교 지성인의 소명: 빛과 소금으로의 삶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타인과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나 삶이나 마음이 세상으로 속박되거나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주신 존재들이다. 세상을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인은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를 갖는 자들이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과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engagement)하는 것이다.

엘룰은 “신앙은 응답이며 즉각적으로 모든 행실을 바꾸는 태도를 수반한다. 신앙의 자유 속에서 동시에 그가 처한 시대의 상황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신앙을 구체화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⁴²⁾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가? 를 선포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자연인이 생각할 수 없는 결정적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의 표지이다.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보여주는 역설적이고 혁명적인 삶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현실이며 인간의 삶 가운데 顯現하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이며 태도이다.

42) Jacques Ellul, *To Will and To Do*, 200-202.

따라서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의 양식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행하는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갖는다. 김성민(1998)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⁴³⁾ 그리스도인은 실제 생활 속에서 삶의 목적을 나타내고 참다운 시각을 제공하며 삶과 존재로 그들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2. 쉐퍼의 관점

1)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신념의 기초

쉐퍼는 자신의 모든 신념은 두 가지 기초에서 이루어졌다고 제시했다.⁴⁴⁾ 사실상 그는 자신의 이러한 신념들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삶을 실천해 온 사람이었다. 쉐퍼는 기독교는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라고 제시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에 삶의 전 영역에 파급효과를 가진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시며 성경은 우리의 규범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세계관과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세계관에 따라 행동한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개인적이며 집단적 역량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쉐퍼는 자신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정통적인 역사적 기독교가 見地해 온 성경에 관한 교리적 입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야 한다는 올바른

43) 김성민, 『현대문명 비판과 새로운 기독교』, 187.

44) 기독교의 진리는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주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쉐퍼의 사회관을 다룬 전집 V권 iv부 『기독교 선언(A Christian Manifesto)』에서 잘 나타난다.

교리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 세속적 가치관과 절대적인 진리를 상실한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주장했다.⁴⁵⁾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를 조명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세대를 위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David W. Gill(1996)이 언급했듯이 “자신들의 지나친 정적주의(Quietism)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행동해야 한다.”⁴⁶⁾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큰 틀은 절대적인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명령들에 순종하는 교리와 그 명령들을 실행하는 바른 실천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통 교리와 정통적 실천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웨퍼는 자신의 기독교적 진리에 일관된 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을 실천한 복음주의의 사도였다.

2) 그리스도인의 자세: 가르침·삶·행동으로

웨퍼는 기독교적 기반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미국적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키려는 문화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상대적인 가치 기준이 만연된 사회를 경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누룩과 겨자씨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웨퍼는 “기독교적 기반의 상실에서 오는 우리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함으로써 한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 세속적 인도주의(secular humanism)에 대해서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in *The Complete Works*, vol 1: 5-502; *How should We then live*, in the *Complete Works*, vol V: 83-227을 보라.

46) David W. Gill, “서구 문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엘룰과 웨퍼』, 김선일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6), 178.

다.⁴⁷⁾ 그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을 함양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삶·행동으로 사회에 도전하는 역량을 기대했다. 쉐퍼는 자신이 속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기독교 선언(A Christian Manifesto)』은 그에게 정치적 행동주의자라는 이름을 갖게 하였다. 그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실존적 문제들을 지성과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도왔다. 쉐퍼는 기독교 교회가 사회와 문화 위에 군림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의 진리가 참된 문화와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뿐이다. 쉐퍼는“어떻게 사회를 기독교적인 기반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어떻게 교회를 진정한 기독교적 기반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를 강조했다.⁴⁸⁾ 쉐퍼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량이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낼 것을 주장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룰과 쉐퍼는 서구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길 원했다. 그들은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제시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량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변혁과 문화적 책임을 감당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계시 중심의 역사 이해의 방법과 실천을 중요시한 영성,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속화된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엘룰과 쉐퍼는 계시의존적인 역사관으로 세속화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장했다. 매

47) Francis A. Schaeffer, *How should We then live*, 227.

48)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iv,2,4.

순간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적 과제와 더불어 삶의 실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현실을 뛰어 넘어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고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가능하다. 그들은 實用과 人本主義, mammon과 세속화로 대변되는 기술사회 속에서 계시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해준다. 그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준다. 이미 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영성이 요구된다. 종말론적 영성과 역사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엘룰과 쉼페는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사회적 책임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들이 후대 복음주의자들에게 제시한 학문의 깊이와 열정적인 신앙, 세속 세계에 던진 영향력, 각양각색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지표 설정해 주었다. 거룩한 구별됨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삶·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은 변혁될 것을 믿는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이문출판사, 2001.
- 박건택 외. 『현대문명 비판과 새로운 기독교』. 서울: 길르앗, 1997.
- _____. “자크 엘룰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학지남, 2005 가을』, 2005.
- 성인경. “쉐퍼의 현대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 라브리 선교회』, 1992.
- _____. 『혼돈시대 속의 확실성을 찾아서』. 서울: 일지각, 1992.
- 이은선. “Theological Thoughts of Jacques Ellul.” 『안양: 대신대학 논문집 11』, 1991.
- 최홍기. “프란시스 쉐퍼와 자크 엘룰의 문화관 비교 연구.” 『서울: 총신대 일반대학 원 석사』, 2008.
- 자크 엘룰. 김점옥 역. 『인터뷰에 의한 자크 엘룰 사상입문』. 서울: 솔로몬, 1994.
- 헤럴드 브라운. 김선일 옮김. 『프란시스 쉐퍼, 그의 삶과 사역』. 서울: 아가페, 1990.
- Gill, David W. 김선일 역. 『엘룰과 쉐퍼』.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6.
- I, Packer J. 라브리 역. 『혼돈시대 속의 확실성을 찾아서』. 서울: 일지각, 1992.
- Jr. Louis Gifford, Parkhurst. 김선일 옮김. 『프란시스 쉐퍼 그의 삶과 사역』. 서울: 일지각, 1990.

2. 원서

- Ellul, Jacques. *Money and Power*. trans. by Lavonne Neff. Downere Grove: Illinois: Inter-Varisty Press, 1984.
- _____. *Ethics of Freedom*. trans. by G.W. Bromile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
- _____. *In Season out of Season*. trans. by David W. Gill. California: New College Berkeley, 1984.
- _____. *Presence of Kingdom*. trans. by Joyce Martin Hank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 _____. *The Humiliation of The Word*. trans. by Joyce Martin Hank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 _____. *The Meaning of The of City*. trans. by Dennis Parde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0.
- _____. *The New Dem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 _____. *The Subversion of Christianity*. trans. by Geoffrey W. Bromil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_____.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 trans. by Marguerite Wieser.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9.
- _____.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by Geoffrey W. Bromil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_____. *Violence: Reflec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rans. by Cecelira Gaul Kings. New York: Seabury Press, 1969.
- _____. *To Will and To Do*. trans. by C. Edward Hopkin. Philadelphia: Pilgrim Press, 1969.
-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The Complete Works, vol V Second Edi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5.
- _____. *A Christian View of Spirituality*. The Complete Works, vol III Second Edi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8.
- _____. *Escape from reason*. in The Complete Works, vol I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5.
- _____. *How should We then live*. The Complete Works, vol V Second Edit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5.
- _____. *The Cod Who is There*. The Complete Works, vol I,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85.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국 문 초 록 •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 했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지성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 1912-1994년)과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년)는 기독교 신앙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현대 사회의 잘못된 병폐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비판한 당 시대의 최고 지성인들이며 행동하는 실천가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선지자적 통찰력과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안목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모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 가치로 보았고 기술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엘룰과 쉐퍼는 모두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냈으며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후대 복음주의자들에게 제시한 학문의 깊이, 열정적인 신앙, 세속 세계에 던진 영향력과 도전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설정해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엘룰과 쉐퍼 두 인물의 신학과 기독교 사회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그들의 역사 이해 방법과 영성(靈性, Spirituality),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적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보려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구별됨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을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은 변혁될 것임을 믿는다.

주제어: 자크 엘룰, 프란시스 쉐퍼, 복음주의 지성인, 영성, 기독교적 관점, 성경, 빛과 소금
